

추석 앞둔 강진군 염소시장, 거래 열기 ‘후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린 강진군 염소 가족경매시장이 전국 각지의 출하농가와 매수인들의 참여 속에 활기를 띠었다. 이날 경매시장에는 출품 염소를 살피고 경매에 참여하려는 농가와 매수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명절 전 가족 유통 현장의 생동감을 더했다.

강진군은 약 140개 농가에서 1만여 마리의 염소를 사육하는 전남의 주요 염소 사육지역이다. 강진군과 강진완도축협은 염소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6월 염소 가족경매시장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개장 3년 차를 맞은 강진군 염소 가족경매시장은 올해 16차례 경매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총 3,650마리의 염소가 경매를 통해 거래됐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2,986마리가 거래되는 등 꾸준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경매에는 염소 257마리가

출하됐으며, 이 가운데 243마리가 낙찰됐다. 생체중을 기준으로 한 평균 낙찰가격은 kg당 약 7천 원으로 나타났다.

강진군 염소 가족경매시장은 출하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현장에서 염소의 외관과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한 뒤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염소 유통의 원활한 거래를 돕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염소 가족경매시장은 생산 농가와 소비시장을 연결하는 지역 축산 유통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염소 사육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강진군은 염소 가족경매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농가와 구매자 간 원활한 거래를 지원해 지역 염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 염소 가족경매시장의 모습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목포시, 추석 명절 맞아 ‘청렴 캠페인’ 실시



‘청렴 캠페인’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1일 시청 현관과 트윈스타 입구에서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추석 명절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했으며, 강성휘 시장을 비롯한 직원 400여 명이 참여했다. 출근길 직원들에게 청렴 실천수칙이 담긴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명절 기간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과 일상 속 청렴 실천을 당

부했다. 목포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도 발령하고 ▲명절 전후 금품·향응 수수 금지 ▲개인 정보 유출 방지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금지 등 주요 청렴수칙을 안내했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목포시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청렴시책을 추진해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민생회복지원금 “추석 전 꼭 받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박차를 가한다.

함평군은 13일 “함평군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14일부터 군민 누구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급 첫 주인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운영했던 출

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지급을 종료하고 오는 1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전환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는 지원금 신청 대상 군민 누구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이 군

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미신청자 안내와 신속한 지급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읍면 이장단과 연계한 안내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 일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1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이문수 기자

영암방문의 해 대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한다

영암군이 2027~2028년 ‘영암방문의 해’를 앞두고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23일까지 ‘2026년 제2차 위생업소 상생투자(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영암군은 2027~2028년을 ‘영암방문의 해’로 삼아, 영암의 창조와 혁신 디엔에이(DNA)가 케이(K)-문화의 원류임을 세계에 선포하고, 인문

영암으로 그 진면목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2027년은 영암군 개칭 1,270주년이자 도선국사 탄생 1,200주년이고, 2028년은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40주년이다. 더 깊고 넓고 정겨운 영암의 사람·자연·역사·문화가 손님을 맞도록 영암군은 영암방문의 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3~6월 진행된 1차에 이은 이번 사업은, 방문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노후화된 일반음식점의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일반음식점의 주방·화장실·객석(객실)·내외부 도색·간판 교체 등의 공사비다. /김기철 기자

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이해 부모교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지역 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의 심리적 위기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자녀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의 SOS 신호, 부모의 관심에서 시작’을 주제로 청소년 자살·자해에 대한 이해와 위험 신호, 자녀와의 소통 및 대응 방법 등을 안내했다.

장영선 주민생활과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모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학부모가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신안군, 전 군민 1인당 1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신안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세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급 기준일인 2026년 7월 1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 기간 내에 마을별 경로당에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추진하여 민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관내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박성태 기자

